뮤지컬 '광주' 오디션, 지역 배우 5명 발탁

'5·18' 모티브 창작 뮤지컬
올해 네번째 시즌 캐스팅 공개
89명 참가…경쟁률 18대 1
실력파 배우 김진욱·김수 합류

왼쪽부터 조배근, 구자언, 나승현, 황수빈, 이수정. 〈사진제공 광주문화재단, 라이브㈜, 극공작소 마방진〉

마침내 독재자가 죽자 광주 시민들은 이내 봄이 올 것이라 믿는다. 특히 들불야학의 윤이건과 황사 음악사의 정화인은 봄의 도래를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깨지고 만다. 쿠데타를 일으킨 JT는 또 다른 독재를 꿈꾸며 모종의 시나리오를 짜는데…

뮤지컬 '광주'가 네 번째 시즌을 앞두고 광주 지역 예술인 5명을 선발하는 등 캐스팅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또한 실력파 배우 김진욱과 김수 등 뉴 캐스트 합류로 캐스팅 라인업도 구축됐다.

'광주'는 80년 5월 광주를 모티브로 한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분노를 그렸으며 무엇보다 영웅서사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8명 전 배역에 나름의 서사를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지역 특화 콘텐츠 작품을 글로벌 콘텐츠 시장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오디션을 진행했고 그와 맞물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

광주문화재단과 라이브(주), 극공장소 마방진은 지난달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디션을 진행했다. 모두 89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신예 배우 구자언, 나승현, 이수정, 조배근, 황수빈을 선발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들은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겸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문배달을 하는 야학생 '장삼년' 역에는 조배근이 캐스팅돼 오리지널 캐스트 원우준(문성일)과 번갈아 무대에 오르고 '광주 시민군' 역에는 안정적인 노래와 연기가 인상적인 구자언, 황수빈이 발탁됐다.

시위대에 잠입하는 '편의대원' 역에는 '그날들', '에드거앨런포'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양찬주가 2023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제작자 통합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배우들은 뮤지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김수 외에도 기존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505부대 편의대원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참상을 목격하고 갈등을 겪는 '박한수' 역에는 김진욱이 이름을 올렸다. 뮤지컬 '고스트', '팬레터' 등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짐진욱은 이번에 깊은 고뇌를 여린 감성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윤이건' 역에는 김찬호가 캐스팅됐다. 시민군을 규합하고 지휘하는 윤이건의 역할을 김찬호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연기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윤이건을 비롯해 광주 시민들은 정권 찬탈을 위해 광주로 투입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온몸을 던졌던 광주 시민들의 의로움과 그날의 진실을 담은 '광주'는 오는 5월 16일부터 21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화·금 오후 7시 30분, 수·목 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2시, 오후 6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서 미리 보기

다음달 6일까지 운영
본 전시 소개·이벤트 등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이 오픈했다. 〈사진〉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와 (주)광주신세계는 8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홍보관은 비엔날레 개막 전날인 오는 4월 6일까지 한달간 운영된다.

이날 홍보관 개관식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숙경 예술감독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사전 축하 공연과 축사, 환영사에 이어 입장권 전달식과 성공 개최를 다지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입장권 전달식 주인공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였다.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와 파빌리온 소개, 이벤트존, 홍보영상존 등으로 구성됐다.

홍보관에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본전시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등 5곳 전시 공간과 파빌리온이 개최되는 9개국 전시 공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홍보영상존에서는 역대 광주비엔날레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소개 영상 등이 상영된다.

이벤트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만든 토퍼를 활용해 인증샷을 찍고 찍은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광주비엔날레 공식계정]과 [#GB홍보관이벤트]를 태그,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홀리데이인 호텔 숙박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트와이스 새 음반 선주문 170만장

걸그룹 트와이스의 새 미니 음반 '레디 투 비'(READY TO BE·사진) 선주문량이 170만 장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작년 8월 발매한 미니 11집 '비트윈 원앤투'(BETWEEN)로 세운 자체 선주문량 최고 기록인 100만 장을 경신했다.

'레디 투 비'의 선공개 곡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84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공개되는 '레디 투 비'의 타이틀곡 '셋 미 프리'(SET ME FREE)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일깨워주는 사랑을 느낀 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음반 발매 후 트와이스는 4월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등 14개 도시에서 17회에 걸쳐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READY TO BE)를 연다. /연합뉴스

황영웅 빠진 '불트' 주인공은 손태진

'불타는 트롯맨' 최종 우승
우승 후보 황영웅 '학폭 이력'에 하차
최종 상금 6억2000만원

각종 폭행 의혹에 휩싸인 황영웅이 하차한 MBN 오디션 예능 '불타는 트롯맨'의 최종 우승은 손태진〈사진〉에게 돌아갔다.

지난 7일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은 결승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황영웅이 빠진 톱7이 결승 2차전을 벌였다.

우승을 차지한 손태진은 남진의 '상사화'를 부르며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손태진은 성악가 출신으로 가수 심수봉의 외조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태진에게는 경연 단계마다 누적된 최종 상금 6억 2000만원이 주어졌다.

2위는 신성, 3위는 민수현, 4위는 김중연, 5위는 박민수, 6위는 공훈, 7위는 에녹이 차지했다.

출연자 가운데 황영웅이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며 프로그램도 화제가 됐지만, 과거 폭행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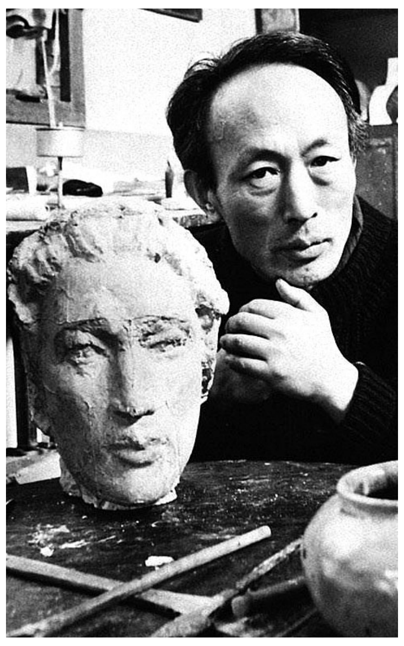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승 1차전이 방송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황영웅은 자진 하차했다. 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의 하차로 오디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고, 황영웅 팬들의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위기를 맞았다.

최종회 시청률은 1부 14.8%, 2부 16.2%, 3부 15.6%로 자체 최고 시청률 16.6%(10회)를 뛰어넘지 못했다. 최종회에서 우승자가 가려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불타는 트롯맨'은 스핀오프 프로그램과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각가 권진규' 삶과 예술 다큐로

명필름, 영화 제작



조각가 권진규〈사진〉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된다.

영화제작사 명필름은 7일 서울시립미술관, 권진규기념사업회와 함께 다큐 '권진규 이야기'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작품 제작은 명필름과 사업회가 맡으며, 미술관 측은 다큐 제작을 위한 관내 촬영 및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께서 권진규의 삶과 그의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진규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 3대 거장으로 꼽힌다. 1922년 함흥에서 태어난 권진규는 1948년 일본으로 건너가 1953년 무사시노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59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작품활동을 이어가다 1973년 5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